

‘엄전 노예’ 빼돌릴 빌미 준 이상한 경찰 수사

“단속 예고로 시간 벌어나” 시민들 분통 “종업원 없다”는 업주 말엔 점검조차 안해 전남경찰, 단속 앞두고 엄전 근로자 기둔 부부 입건

‘신안 엄전 노예’ <광주일보 2월 7일 6면>실제 조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경찰의 ‘부실한 수사 계획’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경찰의 단속 기간(지난 10일~21일)이 공개되면서 “불시단속을 해도 다 새나가는 판에 미리 예고해서 시간 벌어나”는 질책성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종업원이 없다”는 엄전 업주의 말만 믿고 1차 점검을 부실하게 벌인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따라서 경찰·고용노동부·전남도 등이 17일 ‘취약지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내놓은 인권 감독 방안에 대해서 ‘탁상공론’이 아닌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속 한다고 해 미리 빼돌렸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엄전 근로자들을 기둔 혐의(감금 등)로 홍모(46)씨 부부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홍씨 등은 경찰의 ‘엄전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점검’이 10일부터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신안군 신의도 자신의 엄전 인근 집에 장애인을 포함, 근로자 3명을 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근로자들은 엄전에서 일한 6개월~1년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일부 근로자는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2주간에 걸친 단속 기간”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불법 도박장 단속에 날짜 공개하고 하나요?”, “2월 10일 단속할텐데 싸게 싸게 처리할까요!” “조용히 단속해도 될까말까할 판에...”라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봇물을 이루며 ‘시간 벌어나기성’ 단속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단속 기간에 맞춰 ‘근로자 빼돌리기’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그러나 신의도 엄전(237개)에 대한 합동 점검 과정에서 업주 말만 믿고 “종업원이 없다”고 신고한 엄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 전남청 광역수사대가 적발한 홍씨의 경우 예초 “비수기라 종업원이 없다”고 신고

안했다=경찰의 부실한 점검 과정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목포지방고용노동청, 신안군 등과 지난 10일부터 2주간 신의도 등 신안군 일대 13개 섬 855개 엄전과 180개 직업 소개소를 대상으로 엄전 종사자 인권 침해 사례 점검에 나섰다.

경찰은 그러나 신의도 엄전(237개)에 대한 합동 점검 과정에서 업주 말만 믿고 “종업원이 없다”고 신고한 엄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 전남청 광역수사대가 적발한 홍씨의 경우 예초 “비수기라 종업원이 없다”고 신고

고, 1차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의도 내 237개 엄전 중 95곳에서 “종업원이 없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때문에 서류에 의존하는 실태 점검이 아닌,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실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엄전 뿐 아니라, 지리적 여건 등으로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연근해 어선 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는 17일 전남도청에서 박준영 도지사, 정기호 영광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지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전남도 제공>

엄전·양식장 종사자 인권보호 특별수사대 설치

전남경찰청서 현판식...전남도도 재발 방지 대책회의

경찰이 엄전 및 양식장 종사자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해 ‘도서인권보호 특별 수사대’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오전 광역수사대장을 책임자로, 광역수사대 2개 팀, 12명의 전담 인력으로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를 구성하고 전남지방경찰청에서 현판식을 했다.

경찰은 또 섬 지역을 관할하는 7개 경찰서에도 단계적으로 전담팀을 발족해 엄전, 양식장의 임금착취 실태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전남도도 이날 오후 신안·영광군수, 전남지방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취약지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엄전 뿐 아니라 양식장, 새우잡이 어선 등의 근로자 인권 침해를 막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정기적인 협업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

해 ▲이들 근로자들의 정규직화 ▲직업소개소 양성화 및 관리 ▲영세 엄전시설 현대화 ▲전일임 가격 안정화 등의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전남도는 또 지난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평해 이후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치과정에서의 공문서 위조 사건, 여수 기름유출 사건 등 각각의 사안마다 지역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인터넷, SNS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점에 주목, 대응키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지방경찰청은 17일 오전 청사에서 정순도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를 구성하고 현판식을 했다. <전남도 제공>

서광주농협 이사 출마자 금품수수 입건

조합원에 120만원 건네

서광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60대 출마자가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7일 서광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농협협동조합법 위반)로 해당 농협 이사 A(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께 조합원 B(56)씨 집 앞에서 B씨에게 120만원을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은 아니지만 ‘관리’ 차원에서 B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

도 선거와는 무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련 사실이 전해진 뒤 선거를 앞둔 지난 10일 후보에서 사퇴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이사 선거에는 22명이 입후보해 10명이 당선됐다. 4년 임기의 농협 이사직은 무보수지만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조합원 자격 심사와 가입·탈퇴, 예산 집행 등 권한을 갖고 있다.

서광주농협은 2005년 이후 3차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 3명이 금품선거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이사·대의원 선거 비리도 잇따르면서 ‘선거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써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교육장 4명 등 10명 보직 인사

전남도교육청은 3월1일자로 4개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보직자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강진교육청 교육장에 김규화 본청 교육과정과장이, 장흥교육청 교육장에 박봉수 무정초교장이, 영암교육청 교육장에 내대수 장흥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이, 함평교육청 교육장에 노형석 본청 정책기획관이 임명됐다.

또 본청 정책기획관에는 과종월

전남제일고 교장, 교육과정과장에 민영방 한재초 교장, 미래인재과장에 장시준 담양공고 교장, 학생생활지원과장에 임원재 순천여중 교장이 자리를 옮겼다.

직속기관장으로는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 구희대 본청 미래인재과장,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 최복용 학생생활지원과장이 임명됐다.

한편, 교감·교감·교육전문직 인사는 오는 21일 정부 발령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고교생 평균 수면 시간 5시간 27분...4년전보다 1시간 줄어

지난해 우리나라 고등학교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 27분으로 4년 전보다 1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생 10명 중 6명은 하루 중 쉬는 시간이 2시간 미만에 불과했다.

1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를 보면 전국 초등학교(4~6학년)과 중·고교생(전 학년) 9천52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수면시

간은 7시간 6분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시간 19분, 중학생 7시간 12분, 고등학교(특성학교 제외) 5시간 27분으로 집계됐다.

2009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8시간 30분에서 8시간 19분, 중학생은 7시간 24분에서 7시간 12분으로 감소했다. 특히 고등학교 수면 시간은 2009년 6시간 30분에서 5시간 27분으로 1시간가량 줄었다. /연합뉴스

20대 남성, 여성으로 가장해 남고생 상대 ‘못된 짓’

○~20대 남성이 자신을 여성으로 가장하고 남자 고등학교생들을 ‘유혹’해 성적유구를 채우다가 ‘거친 손길’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달미.

○~17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박모(24)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메신저나 채팅으로 고

교생 3명에게 접근해 광양지역 아파트 옥상 계단 등에서 얼굴을 가린 채 만나 특정 부위 등을 만지고 달미한 것.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남성들이 자신의 성적 취향을 이해하지 못하자 성적으로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을 선택했다고 진술.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특가기획 권리금없는 프리미엄 입지

일대 010-8248-6001

분할·통합가능

1층	의류매장 / 금융기관 / 커피숍 핸드폰매장 / 편의점 / 약국 331.38㎡ / 76.42㎡
2층	의류매장 / 금융업소 커피숍 / 휴게음식점 593.17㎡ (≈179.43평)
3층	전문의원 안과·이비인후과 치과·피부성형과 1164.9㎡ (≈352.38평)
4층	사무실 / 학원 365.58㎡ / 216.87㎡ / 582.45㎡
5층	아스터어학원 유투엠수학학원 임대확정

상무지구 BYC건물 맞은편 전속물건 - 공동중개환영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중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점: 361-3515 양동지점: 362-6164
대전화 각화지점: 268-6163 풍암로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NAVER 검색상위에 단비플라워를 쳐보아요

단비플라워

축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